

# 자코뱅 번역: 푸틴의 전쟁이 러시아 공산당의 균열을 드러냈다

레닌의옆머리

2022년 9월 20일 자코뱅 지에 기고된 러시아 공산당에 대한 글이다. 자코뱅 특유의 개량주의적 관점이 가미되었지만 러시아 공산당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된다.

원문: <https://jacobin.com/2022/09/putin-war-ukraine-communist-party-russia-gennady-zyuganov-kprf-history>

지난 4월 포폴리스트 광대 지리놉스키가 사망하자 78세의 겐나디 주가노프는 러시아의 최고령이자 최장기 당 대표가 되었다. 주가노프는 1993년 창당 이후부터 러시아 공산당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다. 러시아 공산당은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정치의 중심이며, 국가 사회주의의 붕괴이후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이다. 그들은 1995년 이후 모든 러시아 의회 선거에서 제1당 혹은 제2당이었으며 1996년 이후 모든 대선에서 2위를 차지했다.

당의 최전성기가 한참 지났다는 것은 사실이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러시아 공산당(과 동맹들은)은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8~9개의 주지사직을 얻었으며 당시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축출하고 좌파 정부를 수립하는데 근접하기도 했다. 특히 (부정선거 가능성이 매우 높은) 1996년 대선에서 주가노프와 옐친이 결선 투표까지 갔던 사건은 러시아 역사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본선 투표에서 승리를 확정짓지 못한 유일한 사례다. 그러나 1999년 이후 공산당은 푸틴과 그의 통합 러시아 "권력 정당"과 격차가 큰 2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 공산당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2021년 9월 두마 선거에서 공산당은 18.9%의 득표를 얻어 57석이 의석을 얻었다. 비록 통합 러시아당이 "초과반" (300석 이상으로 헌법을 바꾸기에 충분함)을 유지한 무의미한 선거였지만, 공산당의 실제 득표는 30%로 추산되며 여당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가노프와 러시아 공산당의 수명과 생존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진정으로 크렘린에 도전하는 당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후자의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은 아니다 이다. 공산당의 안정성은 크렘린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변동하는 원의 시위를 이용하는 능력에 있다. 공산당은 창당 때부터 반체제적인 "공존할 수 없는" 반정부 세력에서 완전히 "체제에 부합하는" 세력으로 변모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급진주의적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쪽 머리는 거리를 향하고 다른 머리는 정권을 향해 있는 켄타우로스에게 빗댈 수 있겠다. 러시아 공산당은 매우 모순적인 정치 세력이다.

"반개혁적" 이미지, 복잡한 현실

러시아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의 후신이지만 실제로는 1990년 창당된 RSFSR 공산당에서 시작되었다. 소련 공산당 보수파들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맞서기 위해 소련의 러시아 공화국을 위한 (이전에는 없었던) 정당을 결성했다. 하지만 RSFSR 공산당은 내부 분열과 당 구조의 권위 유출에 시달렸으며, 1991년 8월 반 고르바초프 쿠데타 이후 옐친에 의해 금지되었다. 당은 쿠데타를 일으킨 국가비상사태위원회에는 참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3일 천하를 암묵적으로 지지했다.

러시아 공산당은 1993년 2월 재건되었다. 제헌의회에서 당 지도부의 항의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당의 새 의장은 주가노프로, 소련 공산당의 선전 담당 부서기이자 친소련 민족주의 정당들과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러시아 공산당의 전반적인 성격은 이때부터 이어져 왔다. 그들은 서구화와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소련 유산의 굳건한 수호자를 자처한다(그들은 소련이 자발적으로 재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 공산당의 "반개혁적" 이미지는 주가노프가 고르바초프를 러시아의 역사에서 가장 악랄한 반역자라고 비난한 것에서 분명해졌다. 주가노프는 소련의 붕괴는 러시아의 국가체제가 친서방적인 제5월에 의해 파괴된 것이라는 민족주의적 주장을 성공적으로 대중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확고한 인식의 이면에는 러시아 공산당의 장기적인 생존에 결정적인 몇가지 다른 요소가 있다. 첫째는 당 지도부의 노넨클라투라(소련의 관료 엘리트층으로 이들은 레닌주의 혁명가가 아니다)적 배경이 반영된 점진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지향이다. 러시아 공산당은 1993년 10월 대통령과 의회간의 무력 충돌에서 살아남았으며 많은 야권 경쟁자들과 달리 새 헌법의 불법성을 비난하면서도 선거에 참여했다.

두번째로, 러시아 공산당은 "반개혁"의 우산 아래 자칭 사회주의자와 브레즈네프주의 보수파, 노골적인 스탈린주의자와 소련을 맑스-레닌주의적 시각이 아닌 민족주의적으로 정당화하는 "민족 볼셰비키"를 포괄했다. 더욱 주목할만한 것은 당국과 타협하는 경향의 온건 지도부와 의회에 부정적이고 지도부에 의구심을 품은 급진적인 지역당 간부들간의 포스트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태도를 둘러싼 균열이었다. 그러나 당의 경향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보수적이었다. 러시아 공산당은 LGBTQ 권리와 2세대 페미니즘에 반대한다.

셋째, 주가노프는 공산주의와 당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산주의가 외국의 이념이 아닌 진정한 러시아 민족적 전통의 표현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민족 볼셰비키적 경향의 우위를 확립했다. 이로 인해 당은 국가 자본과 교회 등의 국가 기관과 화해했으며, 주가노프는 "러시아는 혁명을 충분히 겪었다", "예수는 최초의 공산주의자였다"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의 주장은 이후 정교회는 스탈린에게 많은 빚을 졌다는 발언이 더해지며 더욱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부르주아 국가 구조에 대한 정책은 당 내외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반발을 불렀다. 그들은 공산당 지도부를 의회 만능주의, 계급 투쟁과 국제주의 파괴, 노동조합과 노동 계급과의 연계 실패, 그리고 레닌주의 좌익이 아닌 민족주의 우익이 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실제로 '러시아 사회주의 운동'을 비롯한 신생 단체의 활동가들은 러시아 공산당의 이념은 "온건한 대중적 스탈린주의"와 "정교회 제국주의적 민족주의"의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위계적인 민주집중제와 유가노프의 관료적 계약으로 인해 효과적인 당내 반대세력은 실체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1996년 선거에서 패배한 러시아 공산당은 양당 체제의 일부로서 지배 구조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사회민주주의로의 전환을 고려하기도 했다.

## 푸틴의 도전

그러한 노력들은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대통령직에 오르며 물거품이 되었다. 푸틴의 반자유주의, 정교회 제국주의, 정치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매력은 공산당의 주장과 지지를 흠쳐갔다. 또한 푸틴주의는 "강제된 합의"를 불러 일으켰는데 이는 블라디미르 켈만에 따르면 모든 독립 정치 세력에게 협력 또는 제거를 강요하는 것이다.

당에 무관심했던 엘친에 비해 푸틴은 통합 러시아당을 집권당으로서 지원했고 모든 도전자들을 소외시켰다.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당 체계는 정당의 후보자와 행동을 심사하는 행정부의 "감독관"에 의해 직접 관리되었고 이들은 정당의 후보와 행동을 심사했다. 때문에 야권은 비공식적 규칙(러시아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푸틴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피하고 원외 야권 세력과의 연대를 거부)에 순응해야 했다.

러시아 공산당의 잔존 반체제 추진력은 2004년 크렘린이 공산당의 당원 수를 50만명에서 16만명으로 급감시킨 커다란 분열을 획책하며 효과적으로 분쇄되었다. 실제로 크렘린은 종종 러시아 공산당을 보다 현대적 좌파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밝혀왔다. 하지만 그것은 러시아 유권자들의 복지 선호 성향과 국가의 온정주의에 대한 동조로 인해 더욱 급진적인 좌파의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에, 크렘린은 한 발 물러섰다. 2004년 러시아 공산당의 분당이 거부되었고 공산당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거부되었다. 대신 러시아 공산당은 체제에서 영구적인 제1야당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유가노프 지도부는 게임의 규칙 내에서 당을 운영하고 반대세력과 지나치게 급진적인 동지들을 추방하며 러시아 공산당과 크렘린의 관계를 안정시켰다. 덕분에 공산당에게는 지역적 수준에서 다른 야당보다 더 많은 정권 비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물론 그 한계는 분명하며 주기적으로 강화되었다. 크렘린은 러시아 공산당의 오른쪽과 왼쪽("러시아의 공산주의자"가 대표적)에 다양한 복제 정당을 두어 공산당의 표를 조금씩 흠쳐갔다.

더불어 푸틴의 등장 이후 공산당은 온건 스탈린주의(국가 사회주의를 지지하나 최고 지도자'보즈드'에 대한 직접적 지지에는 침묵)에서 불멸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공개적인 스탈린주의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푸틴은 그 자체로 포스트 스탈린주의 안보 국가의 결과물인 점과 대조국전쟁에 대한 숭배를 이용하면서도 적군이 아닌 백군, 즉 소비에트 이념이 아닌 정교회 제국주의를 지지한다. 이러한 재스탈린주의화는 공산당이 핵심 지지층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새로운 지지층의 형성에는 실패하여 보통 전국 유권자의 10~15%의 지지를 받는다.

2021년 당이 발표한 계획안은 이를 입증한다. 개혁안은 좌익 포퓰리즘과 복지 공약을 강조하며 푸틴의 2018년 연금 개혁 철회, 최저 임금 인상,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체계 지원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나머지는 1990년대부터 반복된 구호의 반복이며, 오래전에 이루어진 민영화에 대한 비난도 포함되었다. 복지와 공정한 선거에 집중하는 것은 기권표 유권자들을 끌어들이 수 있겠지만, 오래된 구호와 인물의 반복은 진부함을 나타낸다. 이러니 러시아 공산당이 러시아에서 가장 지루한 당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세대 교체?

러시아 공산당은 세대의 주요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물론 이 분열은 1990년대 보다는 덜 열성적이다. 먼저 핵심 세력인 붉은 애국자들이 있다. 그들은 잃어버린 소련의 살아있는 조각으로서 소련에 대한 향수로 당을 지지하는 세력이다. 다음으로 중앙 지도부 간부들과 고위층으로 이루어진 관료주의적 실용주의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급진적 반대파들이 있다. 이들은 유명 거리 시위자 세르게이 우달초프, 모스크바 민주사회주의자 미하일 로바노프(러공과 러시아 사회주의자 운동에게 지지를 받지 못함), 사라토프 지방 의원이자 유명 비디오 블로거인 니콜라이 본다렌코 같은 광범위한 좌익 성향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며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대립적인 노선을 지지한다.

핵심 지지층이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층이 점차 젊어지고 있다. 공산당의 지지층은 통합 러시아의 농촌 장악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부터 도시의 교육받은 계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러시아 공산당은 주요 야당이라는 지위와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수사 덕분에 젊고 급진적인 반정부 유권자와 당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반정부 지지자들은 당 체계가 그들처럼 반정부 입장을 따르도록 압박을 가하며 급진적 지지자들은 당의 위계적 구조와 순응주의에 실망하여 이탈하곤 한다. 중앙당은 선거기간에만 급진적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온건해진다.

그럼에도 지도층의 세대 교체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8년 대선에서 유가노프는 레닌 국영 농장의 책임자인 파벨 그루지닌을 지지했다. 비록 그루지닌이 얻은 11.8%의 득표율은 역대 최저 득표였지만 그럼에도 2위를 기록했다. 지지를 잃고있는 유가노프는 2위도 보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러시아 공산당은 집단 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러시아 정당과 달리 지도부의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유력한 후계자는 당 부대표인 유리 아포닌이다. 그는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유가노프가 지금보다 더욱 다원주의적이었을때 얻은 전국적 명성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021년 총선

최근의 선거에서 당은 급진화와 온건화의 패턴을 반복했다. 러시아 공산당은 푸틴의 2020년 개헌에 기권하고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며 다시 급진화되었다. 일부 지역적 지도자들(정부의 부패에 대해 오랫동안 맹비난해온 모스크바 시당 대표 발레리 라쉬킨이 대표적)은 반정부 시위와 수감된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동정을 표명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당은 나발니에게 부정적이지만 그가 주장하는 스마트 투표 계획은 비판하지 않는다.(스마트 투표는 통합 러시아의 대안으로 지지율 2위의 정당을 투표할 것을 주장함) 러시아 공산당은 많은 지역에서 제2당으로서 스마트 투표의 주요 수혜자였다. 다만 2022년부터 스마트 투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세력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며 러시아 공산당과 결별했다.

당은 그루지닌을 둘러싸고 크렘린과 짧은 갈등에 휘말렸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루지닌은 크렘린의 적이 되었다. 아마 2018년 대선이 그를 실망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차기 대권에 도전할 전국적 정치인으로 띄워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로 인해 그의 사업은 압박을 받았고 시의원직을 박탈당했으며 2019년 중앙 선관위는 공석인 두마 의석을 그루지닌에게 양도하는 것을 거부했다.

쥬가노프는 2021년 공산당 후보자 명단에 그루지닌을 3순위에 올렸고 크렘린은 이를 도발로 받아들였다. 그루지닌은 해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명백히 근거없는 주장) 중앙선관위에 의해 빠르게 금지되었다. 어쩌면 쥬가노프는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무기력하게 러시아의 파시스트화를 규탄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루지닌의 희생으로 공산당의 야당으로서의 명성이 올라갔고 당은 그루지닌을 선거운동에 이용했다. 한편으로 당은 모스크바의 라쉬킨과 전 이르쿠츠크 주지사인 세르게이 레브첸코 같은 유명한 문제아들을 중앙 목록에서 지방 목록으로 이동시키며 크렘린 친화적인 선거 목록을 만들어 굴복했다. 선거 후 지도부는 잠시 동안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를 했지만 또다른 조작된 혐의(불법 밀렵)으로 인해 당 지도부와 의회에서 라쉬킨이 축출되는 것을 묵인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당에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러시아 공산당은 크렘린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2014년부터 공산당은 돈바스의 분리주의 정부에(원문에서는 러시아의 괴뢰라고 표현함) 대한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하나였으며 2022년 2월 두마에서 그들을 승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두마 의원과 지역당 지도자, 청년 활동가들 사이에서 강력한 동요가 있었다. 그들은 키예프를 폭격하는 것과 돈바스를 보호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식대로 당은 반정부 인사들을 침묵시키거나 축출하고 “특수 작전”을 열렬히 지지하며 애국자로서의 지위를 강화했다. 심지어 2022년 9월엔 동원령을 시행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돈바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의 역사와 제재를 받는 경제 상황에서 계획 경제의 유용성을 말하며 애국심을 이용하려 했다. 그럼에도 푸틴의 지지가 “깃발 아래 헤쳐모여” 효과로 인해 반등하고 실질적인 야권의 공간이 축소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2022년 9월 지방선거에서 공산당은 참패했다.

공산당의 수명은 시위의 증가 경향을 이용하는 능력에 기반하지만 체제 순응적인 지도부,